

## “꽃같은 나이에...” 전국이 애도 물결

‘이태원 헬러윈 참사’ 사망자 154명...광주 7·전남 3명 확인  
광주시청과 5·18민주광장, 전남도청에 합동 분향소 마련  
각종 행사 취소·축소·연기...가을축제·행사장 현장 점점 강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애끓는 울음소리에 2022년 시월의 마지막 밤, 한반도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관련기사 2·3·4·5·8·10면>  
연일 싸움을 이어가던 정치권도 ‘이태원 참사’ 이후 정쟁을 잠시 멈추고, 대통령과 정부는 사고 수습과 지원책 등을 내놓았다. 전국에서 추모행렬이 이어졌으며, 전문가와 사회 각층에서는 빠른 사고 수습을 주문했고 재발 방지책 마련도 촉구했다.

지난 31일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며 전원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이다. 외국인인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이다.

이날 파악된 이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고향인 희생자는 광주 7명, 전남 3명 등 10명이었다. 애초 사고 직전, 광주·전남지역 희생자는 2·3명으로 알려졌지만 취입과 진학을 위해 주소를 서울 등지로 옮긴 젊은이들의 추가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지역민들은 서로 위로하며 슬픔을 함께 나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 17개 시·도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시청 1층 북카페 앞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고, 이날 오후 7시 이후부터 시민 조문을 받고 있다. 분향소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다.

또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도 광주세월호상주 모임과 청소년추모모임 등이 별도의 무인 분향소를 설치해 오는 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도도 이날 도청 만남의 광장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으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시·도 모두 영정사진, 위패는 생략하고 분향소 입구에 조문록을 비치했으며, 분향소 운영 기간은 결정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또 이날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행사 13

건을 취소 또는 연기했다. 시는 2·3일 빛나는 마켓(BIXPO 야외 부대행사), 2·5일 국악상설공연, 3·4일 광주김치 및 농특산물 국회 나들이 행사, 3·5일 시립발레단 수시공연 ‘발레살롱콘서트II’, 4일 시립합창단 수시연주회 ‘요들송과 함께하는 합창의 밤’, 4일 민관협치 운영위원회의 워크숍 등 행사 6건을 취소하는 등 추모모드에 들어갔다.

또 3일 지역사진작가 초대전과 5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일빌딩245 시민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 임직원 가족대상 남도문화탐방, 대인예술시장 야시장, 전시, 공연 등, 아트파크니 아트스테이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실국장들과 함께 합동분향을 하고 조문록에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전남도는 합동분향소에도 공무원을 상시 배치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조문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30일 김 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국가에도 기간 중 불필요한 각종 행사 등을 자체 또는 축소·연기토록 하는 한편, 축하공연행사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또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가을축제 및 행사장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 31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굳은 표정의 윤 대통령은 약 2분간 조문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조문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수석과 비서관급 참모진 등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문 외에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오전 출근길 분담(도어스테핑)도 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확대 주례회동을 연 자리에서 “이번 사고처럼 주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태원 희생자 추모 지난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헬러윈 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애도하고 있다. /서울=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시작 F-35B 등 240대 역대 최대 1600회 비행

북한 반발 무력시위 가능성

F-35A와 F-35B 등 한미 공군기 240여 대가 참가하는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31일 시작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는 이번 훈련으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에 대응한 북한의 반발성 무력 시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군과 미 7공군사령부가 이날부터 내달 4일까

지 진행하는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와 미국의 F-35B 전투기, EA-18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 등 모두 240여 대가 투입된다.

미국 측의 해병대와 해군, 육군도 동참했다. 호주 공군도 KC-30A 공중급유기 1대를 보내 처음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주둔하는 F-35B 스

텔스 전투기는 최초로 국내 기지에 착륙한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 전력 출격 횟수는 총 1600여 소티(출격 횟수)에 이른다. 미 태평양공군은 이번 훈련의 비행 횟수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이 이처럼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시행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이다.

한미 공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대응할 수 있는 연합 공군의 강력한 항공작전 능력을 투자해 공중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전시 항공작전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2015년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란 명칭으로 이 훈련을 처음 시행했다.

북한은 이번 훈련과 관련, 선전매체를 통해 정세 격화 책임을 한미에 돌리며 맹비난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8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에 이번 ‘이태원 헬러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슬픔과 비통한 심정에 깊은 위로를 말씀드립니다.

# 새로운 대한민국, 살기좋은 지방시대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

| 일 시 | 22.11.10.(목) 14:00 ~ 11.12.(토)  
| 장 소 |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야외광장  
| 온라인 | www.regionexpo.kr

2022 지방시대 엑스포  
EXPO FOR LOCAL ERA IN 2022

Fairness  
Autonomy  
Hope